

호시노재심 뉴스 199 후 2013 년 12 월 15 일발행



12.1 집회후의 도심 데모로 증거공개를 호소한다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12.1 호시노 전국집회에 68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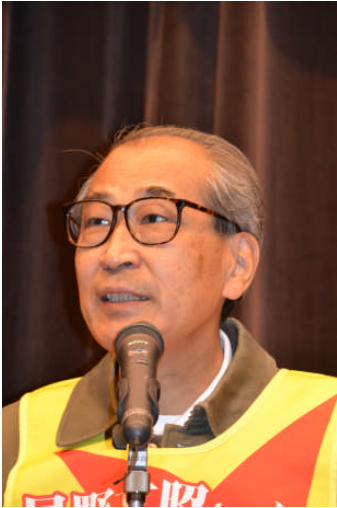


거대한 운동을 만드는 것. 호시노씨 해방에

12.1 호시노 전국집회는 세이료 (星陵) 회관에 680 명이 모여 한해동안 호시노투쟁을 반영해 감동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집회후 「호시노씨는 무죄다」 「호시노씨를 돌려달라」 라고 신바시 (新橋) 까지 힘차게 데모행진. 2014 년 더욱더 싸움을 비약시켜 호시노 후미아키씨 해방의 전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사무국 보고



카나야마 카즈미 (金山 克巳)

오늘 모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승리감입니다. 2013 년 우리들은 싸우고 또 싸워 엄청난 승리감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11 월 23 일 드디어 큐우슈 (九州) 에 새로운 모임이 생겼습니다. 큐우슈 (九州) 에 호시노 탈환의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더욱해서 이와테 (岩手) 현에서 처음으로 호시노전시회가 열려 집회가 거행되었습니다. 『재팬 타임즈』에 호시노투쟁을 소개하는 기사가크게 실렸습니다.

9.8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 투쟁날에 『사랑과 혁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시노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멋진 무기입니다.

전국에 널리 전합시다.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이 적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올해 제일 마음에 남는 싸움은 9.8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 투쟁입니다. 형무소 앞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불러 호시노 후미야키 (星野 文昭)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에 공포를 느낀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가 와쿠타 (和久田) 변호사의 접견에 간수를입회인으로 붙이는 용서 할 수 없는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단이 항의 성명을 하고 항의 성명에 변호사 136 명의 찬동이 모였습니다..

2014 년의 커다란 비약

아베 (安倍) 정권은 개헌과 전쟁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노동자인민의 분노로 타파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호법 반대를 위해 11 월 21 일 히비야 (日比谷) 야외 음악당을 넘쳐나는 1 만명이 모여 싸웠습니다.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토우쿄 (東京) 도지사 이노세 나오키 (猪瀬 直樹) 의 부패입니다. 아베 (安倍) 이노세 (猪瀬) 하시모토 (橋下) 를 쓰러트리고 노동자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자. 그 선두에 서있는 것이 국철 치바 (千葉) 동력차 노동조합 국철 미토 (水戸) 동력차노동조합이며 계급적 노동운동입니다.

호시노씨의 39 년간 불굴의 의지와 비전향의 싸움은 신자유주의의 근간을 타파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호시노씨의 싸움에 감동하는가. 그것은 호시노씨가 신자유주의를 타파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옥중에서 감연하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시노씨를 지금이야말로 우리들 앞으로 되찾자. 2014 년 큰 비약을 쟁취하자. 2009 년의 전국총회에서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호시노씨를 되찾자」라는 기본적인 노선을 확립했습니다. 그것이 위력을

발회할때가 왔습니다. 마즈카와 (松川) 투쟁같이 100 만이라할정도의 규모의 운동을 만들어 나가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구원운동 시민운동 종교자 예술가 변호사가 총집결하는 진형을 만들어 나갑시다. 2014 년 전반에서 승부를 겁니다.

내년 2 월 8 일 9 일 에는 전국 노동노합 교류센터가 토우쿄 (東京) 에서 총회를 개최 호시노씨 해방 도심 데모를 합니다. 국철 치바 (千葉) 동력차 노동조합과 국철 전국운동이 호소하는 새로운 10 만명 서명을 전국에서 추진하자. 2.16 국철집회를 함께 싸우자.

3.11 에는 코오리야마 (郡山) 에 집결해서 모든 원전의 폐로를 위해 싸우자. 싸움의 무기로서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호시노씨 해방의 노래」를 만듭시다. 6 월에는 그 발표회로서 전국집회를 개최합니다. 이상의 결의를 담아 신바시까지의 데모에 쫓기하자.

무기정역을 타파할 때가 왔다



호시노 아키코 (星野 暁子)

바쁘신 중에 오늘 집회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미아키로 부터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받아왔으니 전하겠습니다.

후미아키의 병을 고치고 나의 병을 고치고 무기정역형에 의한 중압과 분단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그것은 후미아키가 말하고 있는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해서 모든 사랑을 가지고 접하며 싸우는 동지와의 단결에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9.8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데모에 참가 그리고 『사랑과 혁명』의 판매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올해는 지금 까지 이상으로 옥중의 후미아키와 우리들의 싸움이 하나가 되어 싸울 수 있었던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출판한 것으로 인해 후미아키와 나의 함께 싸워온 27 년간의 사랑과 단결의 발자국이 여러분에게 강한 유대감으로 맺어져 있는 진한 부부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받아 들여져 이해를 얻게 된 것이 기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외주화의 확대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무기정역형의 나날을 승리해온 후미아키의 39 년 함께 살아온 27 년이 모두의 「삶의 터전」이 되어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후쿠오카 (福岡) 모리오카 (盛岡) 의 대성공

11 월 23 일 후쿠오카 (福岡) 에서 열린 25 번째의 결성집회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젊은 여성으로부터 「후미아키씨와 모두를 연결해 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9 일 모리오카 (盛岡) 에서의 회화전과 집회도 35 명의 참가로 대성공을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카다 코우스케 (岡田 幸助) 씨라는

크리스천 이자 이와테 (岩手) 대학의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운동에 열심이신 분들이모여 26 번째의 모임이 결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도 후미아키와 나의 삶이 공감을 얻어 받아드려진 것이 기뻐했습니다.

후미아키와 나는 몸으로 사랑하는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유로이 마음껏 대화를 나누는 것도 빼앗겼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후미아키는 면회에서 내가 자두를 덩석 씹는 것을 보고 「아키코가 무언가를 먹는것을 본것은 처음이야」라며 넋을 잃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후미아키=아키코투쟁입니다.

무기징역이라도 같이 살려고 출발한 우리의 사랑과 싸움이 무기징역형 그 자체를 타파할 때가 왔습니다. 돈보다 생명 사랑 단결 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멋진 것이란 것이 전해질 시대가 온 것입니다. 후쿠오카 (福岡) 모리오카 (盛岡) 에서의 성공은 그것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국철 원전반대를 절대반대로서 하나가 되어 싸우고 가까운 시기에 호시노해방을 반드시 쟁취하자!」 이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의 메시지를 전체의 메시지로써 확인합시다.

오늘의 데모는 국제연대의 데모로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전 흑표범당으로 종신형과 싸우는 미국의 흑인 정치범 무미아 아부 자말 애국법과 싸우는 74 세의 여성변호사 린 스튜어트 사형제도와 싸우는 흑인 사형수 케빈 쿠퍼의 해방도 요구하며 목소리를 올립시다.

재심 변호단 보고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가 중요



주임변호인 이와이 마코토 (岩井 信)

12 월에 사가미하라 (東京) 에서 개최되는 회화전에 대해 기자회견이 열려 나도 참가했습니다. 아사히 (朝日) 신문이 간사회사를 맡았고 요미우리 (読売) 토우쿄 (東京) 신문 카나가와 (神奈川) 신문의 기자가 왔습니다.

그때 요미우리신문의 기자가 「당파의 사건이 아닌가」 「재심청구에 대해 무죄라고 판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질문입니다. 나는 「판정 되었기에 재심청구 한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제 1 차 재심청구로 최고재판소가 확정판결이 호시노씨를 유죄로 판결한 핵심적 증거인 Kr 씨의 흉술에서 옷색갈의 흉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것 다음으로 호시노씨는 리더로서 데모대 전체를 한시각이라도 빨리 시부야(渋谷)로 유도하려고 흐트러진 대열을 정돈하기 위해 십자로의 가운데에 서서 사방을 보고 기동대의 습격에 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시노씨가 구타의 현장에 가서 때릴리가 없는것.

또한 증거개시를 한 사진 속에 구타현장을 벗어난 지점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구타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새하얀 종이에 싸여있는 철과이프를 호시노씨가 지니고 있는 사진이 있던것 등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보면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사히(朝日)」의 기자는 기지가 빠진 반환에 반대를한 비준 반대투쟁이 당시 많이 있었고 지금도 특정비밀보호법안이라는 형태로 그때의 문제를 포함해 크게 의논되고 있다. 그래서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그자리에 있던 동료기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증거개시의 엄청나게 커다란 공방 의견의 응수를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여러분 함께 증거개시를 향해 운동의 전개에 참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거개시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진 검찰관



변호단장 스즈키 타츠오 (鈴木 達夫)

우리들은 증거개시를 위해 삼자협의를 가지고 또 검찰관과 빈번하게 서면의 응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드디어 검찰관은 증거를 내놓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 두번에 걸친 토쿠시마(徳島) 형무소 포위데모는 사야마(狭山) 투쟁에서 치바(千葉) 형무소 포위데모는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전쟁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 거의 없는 일입니다. 이것에 적이 떨고 있습니다.

또한 요전에 계속 싸워온 증거개시를 요구하는 토우쿄(東京) 고등재판소 포위데모가 완전히 새로운 정세를 만들어 토우쿄(東京) 고등재판소.고등검찰청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도 증거개시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얼마전에 승리한 고빈다씨 등의 싸움도 큼니다만 지금까지 재심증거의 처리가 얼마나 이상했다는 것이 밝혀 졌다. 그런점으로 제 2 차

재심청구의 결정적인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검찰관은 Kr 홍술의 옷색갈의 잘못에 대해 「확정판결은 Kr 은 옷색갈 뿐만이 아니고 목소리로 호시노라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목소리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나야 나야 사기피해자의 급격한 증가에 케이시쵸 (警視庁) 자신이 목소리는 신용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 명의 민간인 현장목격자 홍술조서의 개시요구에 대해 검찰관은 이 사건들의 목격자는 「보통 상황이 아닌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며 정신적으로 어수선했음 등의 방해로 인해 주의력을 집중해서 관찰하지 못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시노씨를 유죄로 몰고간 이상할 정도로 상세한 Kr 홍술은 무엇인가. 완전히 모순된 주장입니다. 이런말밖에 말할 수 없게된 현상태를 우리들은 하나의 새로운 단계 결정적으로 몰아넣고 있는 단계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서면의 왕래도 중요합니다만 오늘의 수백에 달하는 도심 데모가 결정적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를 위해 싸워나갑시다.

새로운 구원모임으로부터

호시노 무죄론으로 무기징역형을 타파하자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를 되찾는 모임.큐우슈 (九州) 아키야마 카즈유키 (秋山 勝行)



큐우슈 (九州) 에 호시노투쟁의 깃발이 올려졌습니다. 우리들은 늦었습니다만 선두에 설 결의입니다. 호시노투쟁의 핵심을 두고있는 6 명의 홍술조서는 국가권력의 강제와 유도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해 달라고 호시노씨의 편지에 써있었습니다. 삼개월간 필사적으로 격투한 결과 6 명의 홍술조서가 국가권력에 의해 완전하게 날조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케이시쵸 (警視庁) 의 지하 취조실에는 전쟁후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전혀없습니다. 거기서 사면초가인 상태에서 호시노씨 날조에 가당당한 것입니다.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당한 청년들이 자신들의 빼앗긴 청춘을 되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법정에서 쫓겨합니다.

그들은 이구동음으로 나는 호시노씨에게 폐를 끼쳤다 그러나 호시노씨를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은 아니다 자신의 청춘을 탈환하기 위해왔다고 절규했습니다.

모든 증거개시 운동을 추진하는 핵심은 호시노 무죄론입니다. 이 확신에 이르면 호시노 무기징역은 타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11 코오리야마 (郡山) 에 총궐기를

3.11 원전반대 후쿠시마 (福島) 행동 호소인 시이나 치에코 (椎名 千恵子)



「후쿠시마 (福島) 의 호랑이가 된다」고 말한분이 호랑이를 그만워서 내가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비밀보호법은 전쟁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후쿠시마 (福島) 에서 열린 공청회는 비밀모임이었습니다. 그 회장에 가서 플래카드를 들었더니 지금까지 반대하던 여자들이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현실에 대해 시민도 잠자코 있지 않습니다. 계속 불어나는 오염수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불타오르는 원전반대의 목소리는 막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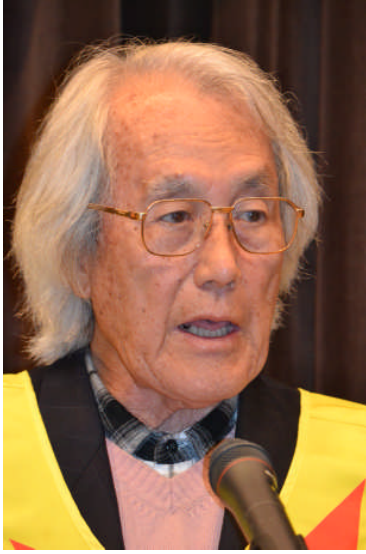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로 후쿠시마 (福島) 시 니혼마츠 (二本松) 시코오리야마 (郡山) 시 히로노마치 (広野町) 수장선거에서 수장들이 모두 신인에게 졌습니다. 당선한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현체제를 이제 바꾸고 싶다는 후쿠시마 (福島) 의 아픔과 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3.11 은 결코 역사에서 지워서는 안되는 원전반대의 날입니다. 이행동을 시작한 것이 이 1 년간 일본과 세계의 원전반대운동을 개척했습니다. 내년 3.11 일 코오리야마 (郡山) 에 와서 함께 싸워주세요.

시국은 자신들이 열어 나가는것. 바로 그 중심에 있는것은 호시노씨입니다. 옥중 39년을 버텨낸 것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해방시켜 그것을 세계에 계속해서 호소한다. 시국은 자신이 바꾸는 것 시국은 단결과 계급적인 혼이 바꾸는 것이라고 나는 새로이 배웠습니다.

지금 시대를 넘어 우리자신이 호시노투쟁이라는 단상에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호시투쟁을 원전반대 운동의 중심에 두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적을 몰아넣고 있다는 승리감이 있다



공동대표 타이라 오사무 (平良修)

집회는 너무나도 내용이 풍부해서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것이 힘듭니다. 나는 호시노의 구원을 위한 전국집회는 멋진 진정한 인간의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혼을 가지고 있는 보다 인간적으로 있고자 생각하고 있는 서로격려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매우 미력을 느낍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가지 싸움을 구사해나가며 한사람을 구해내려고 하고 있다. 한사람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긴다는것은 우리들 개인 개인의 해방에 직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자기자신을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소홀히 하는것은 아무리 큰 힘이라도 철저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이 전국집회라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하는 집회입니다.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 포위데모는 분명 기세가 있는행동입니다. 지방에서 『사랑과 혁명』이라는 알기 쉬운 책을 출판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조용한 힘이 넘치고 넘칩니다. 멋진 책이네요. 나는 이책을 읽고 새롭게 호시노구원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책은 우리들의 싸움의 정당성을 철저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런 책을 출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운동의 에너지이며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있었던 전국집회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적을 몰아넣고 있다는 승리감이 모임을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시노씨의 제일 새로운 초상화가 있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빠른 기회에 본인을 이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